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
2019년 11월 2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8.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27.(수)	담당부서	국제표준협력과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기계융합산업표준과
담당과장	한상미 과장(043-870-5350) 배진석 과장(043-870-5360) 정민화 과장(043-870-5370)	담 당 자	이응로 연구관(043-870-5352) 김한상 사무관(043-870-5363) 이위로 팀 장(043-870-5374)

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표준협력대화 양해각서 체결

① 국표원,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DIN·DKE와 한-독 표준협력대화 출범
② 스마트제조 및 미래차 표준화를 위한 공동 작업그룹 구성
③ 한-독 산업계 교류 위해 표준포럼 및 표준리더 조찬간담회 개최

□ 우리나라가 **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스마트제조, 미래차 등 혁신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**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28일(목)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표준원(DIN),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(DKE)와 '**한-독 표준협력대화 출범**'**을 위한 양해 각서(MOU)를 체결**했다.

○ 양국은 **제1차 한-독 표준협력대화를 29일(금) 개최**하고, 이 자리에서 **스마트제조와 미래차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**할 계획이다.

< 한-독 표준협력대화 행사 개요 >

○ **(기간/장소)** 2019.11.28.(목) ~ 11.29.(금), 서울 밀레니엄 힐튼 및 대한상의
○ **(참가규모)** 한·독 스마트제조, 미래차 등 관련 전문가 150여명 참석
* (주최) 산업부 국표원, (주관) 한국표준협회, (후원) 대한상의, 한독상의
○ **(주요일정)**

일 정		내 용	장 소
11.28(목)	10:00-17:00	한-독 표준협력대화 양해각서 체결 2019 한-독 표준포럼	밀레니엄 힐튼호텔
11.29(금)	07:30-09:30	한-독 표준리더 조찬 간담회	〃
	10:00-18:00	제1차 한-독 표준협력대화	대한상의 국제회의실

□ 국표원(ISO·IEC 한국대표)과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DIN(ISO 독일대표) 및 DKE(IEC 독일대표)는 28일(목)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**한-독 표준협력대화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**(MOU) **체결식을 개최**하였다.

○ 국표원은 이번 독일 DIN·DKE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**한-독 표준협력대화의 정례회의를 매년 순환 개최**하기로 하였으며,

○ 29일(금) 개최되는 제1차 회의에서는 차세대 표준인력 양성 등 **양국의 주요 표준화 정책 동향을 교류**하고, **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의 표준화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**하여 국제표준 공동 제안과 국제표준화 작업 상호공조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국표원은 정례회의뿐 아니라 **기술분야별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**하여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**다양한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·기술분야의 협력과제를 발굴·추진**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이 날 양국은 산업계의 표준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**'한-독 표준포럼'을 개최**했다.

○ 오전 포럼 기조강연에서는 **미래 표준화 전략, R&D와 표준화 연계 전략 등 양국 국가표준 정책을 소개**했으며, **삼성디스플레이와 독일 BMW에서는 기업 관점의 국제표준화 활용 사례를 발표**했다.

○ 한편 오후에는 ①**스마트 제조,** ②**미래차**의 2개 분야로 나뉘어 **지멘스·LS산전·BMW·현대차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기술 동향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을 공유**하였으며, **향후 양국 기업의 표준화 협력 방안**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□ 이번 포럼에는 **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, 바바라 졸만 한독상공회의소 회장, 슈테판 아우어 독일대사 등이 참석**하여 한-독 표준협력에 대한 양국 산업계의 기대를 표명하였다.

○ 포럼을 후원한 **대한상의와 한독상의는** 양국이 **긴밀한 표준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**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29일에는 제1차 한-독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**독일 대표단과 한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'한-독 표준리더 조찬간담회'**가 열린다.

○ 독일 DIN의 뤼디거 마르크바르트 부회장과 DKE의 플로리안 슈피텔러 대외협력이사가 **미래 기술과 표준 전망, 독일 기업의 표준경영 전략 등을 발제**하고,

○ 국내 산업계의 표준리더들과 **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**을 진행하는 등 **양국 표준 리더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**가 될 전망이다.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**"이번 표준협력대화 출범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고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"**이라고 평가하고,

○ "앞으로 미국과 인공지능,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**주요 전략 국가와의 글로벌 표준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"**고 말했다.

○ 또한, 이 원장은 **"우리 기업이 글로벌 표준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"**고 말했다.

【붙 임】 1. 독일 국가표준기관(DIN/DKE) 개요
2. 한-독 표준포럼 일정(안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이응로 연구관(☎ 043-870-53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독일 국가표준기관(DIN/DKE) 개요

◇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DIN과 DKE는 산업계와 함께 표준화 독일의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전략을 수집·추진

◇ '10년부터 '인더스트리 4.0' 전략을 통해 스마트 제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, 자동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차 산업 혁신을 위한 R&D와 표준화 연계를 중점 추진

□ 독일 국가표준기관

○ DIN/DKE는 **유럽표준화기구 CEN/CENELEC 및 국제표준화기구 ISO/IEC의 독일 대표기관**이며, DIN/DKE 직원은 **국가,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표준 프로젝트를 관리**

- 비영리 민간기구인 **독일표준원(DIN)**을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운영

* DIN(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.V.): 직원 480여명, 34천여명 전문가 참여

- 전기전자분야의 표준화는 **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(DKE)**에서 담당

* DKE(Deutsche Kommission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): 직원 120여명, 9천여명 전문가 참여

< 독일 국가표준기관과 유럽지역표준화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관계 >

	General	Electrotechnical	Telecommunication
International	ISO	IEC	ITU
European (regional)	CEN	CENELEC	ETSI
German (national)	DIN	DKE VDE DIN	DKE VDE DIN

붙임 2 한-독 표준포럼 일정(안)

□ 일자/장소: ‘19. 11. 28.(목) /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

시 간	구 성	
09:30-09:40	**국표원-대한상의 산업계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MOU 서명식**	
09:40-10:00	포럼 등록 및 네트워킹 / VIP 티타임	
【 오전 – 전략 이슈 】		
10:00-10:10	**개회사 및 MOU 서명식**	
	[개회사]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Rüdiger Marquardt, 독일 DIN 부회장/Executive Board Florian Spiteller, 독일 DKE 대외협력이사/Executive Board	
	[서명식] 국가기술표준원(KATS)–독일표준원(DIN)–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(DKE) 간의 한-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MOU	
10:10-10:20	**환영사, 축사 및 단체사진**	
	[환영사]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	
	[축 사] 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 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CEO	
	[포럼 주요 내빈 단체사진 촬영]	
10:20-11:20	**기조 강연 Ⅰ : 기술 & 표준 이니셔티브**	
	[독일전략Ⅰ] 독일 첨단기술 R&D 전략과 표준화	독일표준원(DIN)
	[독일전략Ⅱ] 독일 미래기술 표준 전략	독일전기전자기술위(DKE)
	[한 국 전 략] 한국의 R&D-표준 지원 전략	국가기술표준원
11:20-11:40	커피 브레이크	
11:40-12:20	**기조 강연 Ⅱ : 표준 & 기업 경쟁력**	
	독일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용 사례	BMW Simon Fürst 센터장
	한국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용 사례	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
12:20-14:00	오찬 (VIP / 참가자)	

※ 한-영 동시통역 지원

시 간	구 성	
【 오후 – 기술 이슈 】		
	스마트 제조(Smart Manufacturing) - 좌장 : 주영섭 회장 -	**미래차(Future of Mobility)** - 좌장 : 최종찬 표준코디 -
14:00-16:20	A. 패널 발표 1) 스마트 제조혁신의 전략적 방향과 한독 표준 협력 - 주영섭 회장(스마트제조혁신포럼) 2) 독일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- Mr. Alexander Nollau(DKE) 3)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표준기반 제조혁신 추진전략 - 박한구 단장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) 4)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Asset Administration Shell 적용 사례 연구 - 홍승호 교수(한양대학교) 5) 제조용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표준화 현황 - 유상근 책임(ETRI) 6) 스마트제조 상호운용성 기술 Converged technology-based RAPIEnet+ - 권대현 수석(LS산전) 7) 스마트공장 국가표준과 업종별 USE CASE 실증화 - 최동학 표준코디(국표원)	A. 패널 발표 1) 독일 미래차 국가플랫폼 활동 발표 - Rüdiger Marquardt(DIN) 2) 한국 자율차 기술 및 표준화 현황 - 최종찬 표준코디(국표원) 3) BMW 자율주행 표준화 전략 - Simon Fürst(BMW) 4)한국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례 - 계동경 대표(토르드라이브) 5) 독일 전기차 표준 현황 - Julia Migenda (DKE) 6)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표준화 현황 - 이재조 팀장(한국전기연구원) 7) 수소차 기술 및 표준 현황 - 김형기 책임(현대자동차)
16:20-16:40	Coffee Break	
16:40-17:20	B. 패널 토론	B. 패널 토론

※ 한-영 동시통역 지원